

사무엘상 1장 21-23a절 말씀

-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
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
-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
아이를 짓 떼거든
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
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
- 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
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짓 떼기까지 기다리라
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

사무엘상 1장 23b-28절 말씀

-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짓 떼기까지 기다리다가
- 24 젖을 떤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
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
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
아이가 어리더라
-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
- 26 한나가 이르되
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
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
-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
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
-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
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
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